

경북도, APEC 계기로 사상 최대 ‘코리아 세일즈’ 나선다

‘K-테크 쇼케이스’서 AI·XR 등 韓 산업경쟁력 전 세계에 알려 경제전시장서 지역기업 기술 선배 해외기업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

경북도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역과 국내 기업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전시장을 본격 가동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K-테크 쇼케이스’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주낙영 경주시장 등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상과 첨단 신기술 전시를 둘러봤다.

‘K-테크 쇼케이스’는 31일까지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메타(Meta) 등 국내의 주요 기업이 참가해 기술력과 혁신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회에서는 모빌리티·로보틱스, 인공지능(AI)·스마트홈, 메타버스·확장현실(XR)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K-테크 쇼케이스’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상과 첨단 신기술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경북도

있다. 또 삼성, LG, SK, 현대차를 비롯해 5개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과 제품을 발표해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경제전시장은 ‘과거와 현재, 대한민국이 이끄는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대한민국 산업역사관 ▲첨단미래산업관(이차전자·모빌리티, 반도체, 조선해양, 화장품·바이오, 웹툰·드라마·캐릭터) ▲지역기업관(55개 기업) ▲K-경

북푸드 홍보관 ▲5韓(한복·한식·한옥·한글·한지) 문화체험관으로 구성됐다. 특히 첨단미래산업관에는 도내 30개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해 기술력 중심의 강소기업 면모를 선보인다. 전시장은 정상회의 기간 중 APEC 정상과 대표단, CEO Summit 참가 기업인이 관람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된다.

경북도는 이번 APEC을 역대 최대

세일즈무대로 삼아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설명회와 상담회, 투자유치 협약을 통해 참여 기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APEC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상과 첨단 산업을 세계 정상과 글로벌 CEO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전 세계에 알리고 경북을 비롯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견인하는 사상 최대의 세일즈 무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와 딜로이트컨설팅이 공동 분석한 결과, 올해 APEC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7조 4000억원으로 추산되며, 단기 직접 효과는 3조 3000억원, 중장기 간접효과는 4조 1000억원, 취업 유발 효과는 2만 3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내일 전국장애인체전 개회식

부산시는 25년 만에 개최되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이 오는 31일 오후 5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개회식은 오후 5시 개식통고와 가수단 입장으로 시작된다. 각 시도 선수단은 한국 최초의 노래방인 부산로얄전자오락실을 재현한 무대를 통해 입장하며 사전 신청곡과 함께 불굴의 투혼을 표현하는 영상이 상영된다. 이어 애국가 제창, 선수 및 심판단 선서, 개회 선언, 환영사, 개회사, 기념사가 순서대로 진행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안동시

전 세계 인문학자 한자리에

안동시가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 세계 인문학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제8회 세계인문학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AI 대전환 시대의 인문학: 공존을 위한 모색’을 주제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인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인간의 존엄, 공존의 가치를 논의하는 국제 학술행사다.

2011년부터 격년으로 열려 올해로 8회를 맞는 세계인문학포럼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인문학 국제 포럼으로, 올해는 20여 개국의 세계적 석학과 국내외 연구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경주시

‘AI·XR 골목영화관’ 운영

경주시는 경북도와 함께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황리단길 일원과 황남고분군 등 10 곳에서 ‘AI·XR 골목영화관’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2025 경상북도 국제 AI·메타버스 영상 공모전’ 수상작과 우수작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편영화, 창작영상, 광고,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 공모전에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해 ‘APEC 특별부문’을 신설, APEC과 경주, 신라를 주제로 한 창의적 영상물이 상영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대구시

오늘 ‘대구아트스퀘어’ 개막

대구시는 지역 최대 미술축제인 ‘2025 대구아트스퀘어’가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엑스코 동관에서 열린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DIAF에는 6개국 108개 화랑이 30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판매하고,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현대미술 작품을 통한 예술적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전시장에서 현대무용단인 뿔마루무용단의 퍼포먼스가 펼쳐져 전시와 공연이 어우러진 색다른 예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미술프로젝트에는 청년 작가 14명이 참여해 ‘청년미술=미래미술’을 주제로 2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포항시, 북구 도심 교통망 개선 장성~지곡 도시계획도로 착공

우현동~창포동 마장지 잇는
1단계 구간 착공… 31개월 공사

포항 북구 도심의 교통망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포항시는 장성~지곡간 도시계획도로(중1-184호선) 개설 공사 착공식을 지난 28일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북구권 상습 정체 구간 해소와 도심 3축 가로망 완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

장성~지곡간 도시계획도로는 총연장 7.1km 규모로 계획됐으며, 이번 착공하는 1단계 구간은 우현동 국도 7호선에서 창포동 마장지를 잇는 1.52km(폭 20m, 4차로) 구간이다.

시는 총사업비 569억원을 투입해 약

31개월간 공사를 진행하며, 20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총 3단계로 추진되며, 향후 2·3단계 구간까지 완공되면 장성·지곡·우현·창포를 하나의 순환축으로 연결하는 ‘도심 교통 순환망’이 완성된다.

도로가 개통되면 영일만대로와 새천년대로에 집중된 교통량이 분산돼 출퇴근 정체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학·주거·산업·업무 기능이 혼재된 북구 생활권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정주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착공식에서 “이번 도로는 북구 도시구조를 순환형으로 재편하고 시민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미래 교통축”이라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신안군, ‘태평염전’ 문화재 등록 말소 신청

강제노동 논란에 보존 가치 없어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지이자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전남 신안의 ‘태평염전’이 문화재 등록 말소를 신청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신안군에 따르면 태평염전은 최근 국가유산청에 염전과 석조소금창고 등 2건에 대한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말소를 신청했다.

염전의 강제노동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미국 정부의 태평염전 수입금지 조치까지 겹치면서 문화유산으로서 지켜야 할 명예를 상실했다는게 등록 말소 신청의 이유로 전해졌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지난 4월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천일염 제품에 대해 수입 보류 명령(WRO : Withhold Release Order)을 내렸다.



7일 오전 전남 신안군 하늘에서 바라본 태평염전에서 천일염 생산을 위해 해수를 말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

태평염전 측은 “태평염전이 일제강점기 이후의 염업 발달을 상징하는 산업유산으로 등록됐으나 강제노동 사건으로 상징성과 사회적 의미가 심각히 훼손됐다”면서 “천일염 산업을 유지·보존하는 장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판단돼 지정해제를 신청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청도군, 外人 계절근로자 모범사례 주목

356명 근로자로 농촌 인력난 해소

청도군이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청도군은 2023년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필리핀 카빈티시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84명의 근로자를 유치했다.

군은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마약검사비와 산재보험료 지원, 통역 인력 배치, 월 1회 이상 근로현장 점검 등 세심한 행정을 펼쳤으며, 그 결과 단 한 명의 무단이탈자 없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2025년 현재 청도군은 35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운영 중이며, 이 중 필리핀 84명, 라오스 58명 등 140여 명이 입국해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보태고 있다.

특히 청도군은 현지 면접 선발제, 정기 현장 상담, 통역 지원 체계를 운영해 근로자와 고용농가 간의 신뢰를 높였으며,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 중심 행정을 바탕으로 2년 연속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운영 경험은 농촌 인력난 해소의 안정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청도군은 내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소규모 영세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도(경북)=김준한 기자

무안군, 이상기온에 낙지축제 비상

성수기에도 고수온에 어획량 줄어

고수온 등의 영향으로 제철을 맞은 낙지가 잡히지 않으면서 낙지축제를 앞둔 전남 무안군에 비상이 걸렸다.

무안군에 따르면 11월 1~2일 무안을 뱃나지 거리와 중앙로 일원에서 ‘제3회 무안갯벌낙지축제’가 열린다. 축제에서는 군민가요제와 인기 가수 공연, 어린이 즉석 낙지잡기, 낙지 경매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하지만 낙지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이 줄어 ‘낙지 없는 축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안지역은 지난 6월 이후 3개월간 이어진 무더위로 바다수온이 상승하면서 낙지 치어 폐사가 발생,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낙지잡이 어민은 “여름철 높은

수온으로 6~7월 낙지 치어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업에 나서도 기름값과 미끼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며칠째 조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어획량 감소로 어민들의 출어가 줄면서 가격은 급등했다. 최근 세발낙지 한 마리 도매가는 1만 원, 중간 크기는 2만 원을 웃돌며, 대낙지는 잡히지 않고 있다.

무안군은 상인들에게 적정 가격 유지와 바가지 오해 방지를 위해 가격 사전 공지를 유도하고 있다.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불친절과 바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낙지 외에도 전어, 새우 등 제철 수산물을 준비해 관광객을 맞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